

큰스님 수행한담

“나를 구해야 세상 구하고

다시 푸는 경서

진심직설(眞心直說) ⑫

六存心存境 謂做功夫時
육존심존경 위주공부시
心住心位 境住境位 有時心境
심주심위 경주경위 유시심경
相對則心不取境 境不礙心
상대척심불취경 경불礙심
各不相到 自然安念
각불상도 자연안념
不生於道無碍 故經云
불생 어도무애 고경은
是法住法位 世間相常住
시법주법위 세간상상주
即明師 人境俱不取法門也
즉조사 인경구불탈법문야
故有語云 一片月生海 幾
故유어언 일편월생해 기
家人上樓 又云 山花千萬朵
가인상루 우운 산화천만다
遊子不知歸 此是存境存心滅妄功夫也
유자부지귀 차시존경존심멸망공부야

대천사계 타성일편 경어하쳐
得妄心來 所以禪法師
득망심래 소이조법사
云天地與我同根 萬物與我同體
운천지어아동근 만물어아동체
次是內外全體滅妄 功夫也
차시내외전체멸망 공부야

일공제는 안과 밖이 전체인 경지이다. 말하자면 공부할 때 산하와 대지, 일월과 별, 그리고 안의 몸과 바깥 세상의 사물과 일체의 법이 다같은 진심의 본체라서 고요히 비고 밝아 털끝만 큼도 다름이 없어서 대천 세계의 모래처럼 많은 세계를 부수어서 한 조각으로 만들 수 있는데 다시 어느 곳에서 망심이 오겠는가. 이런 까닭에 승조(僧肇)법사는 “천지와 나는 한 뿌리이고, 만물과 나는 한 몸이다” 하였으니, 이것이 곧 안과 밖이 한 덩어리가 되어 망심을 없애는 공부이다.

八內外全用 謂做功夫時
팔내외전용 위주공부시

여섯째는 마음도 두고 경계도 두는 것이다. 말하자면 공부할 때, 마음은 마음 자리에 머물게 하고 경계는 경계의

마음은 마음자리에 머물게 하고
경계는 경계의 자리 머물게 하라

자리에 머물게 하여 때로 마음과 경계가 상대하게 되더라도 마음은 경계를 휘하지 않고 경계는 마음에 들어오지 않아 각각 서로가 부딪치지 않으면 자연히 망념이 생기지 않으니 도에 아무 장애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경에 말하기를 “이 법(世間法)이 참된 법의 자리에 머무니 세간의 모습도 항상 머문다” 하였으니, 이것이 조사의 ‘사람과 경계를 다 빼지 않는다’는 법문이다. 그러므로 “한 조각 달이 바다에서 오르니 몇집의 사람이 누각에 오르는가(이 경우 달은 경계요 사람은 마음을 상징함)”하는 말도 있게 된 것이다. 또 말하기를 “산에 천만송이의 꽃이 피었으니 우람 나온 사람은 돌아갈 줄 모르네(이 경우 꽃은 경계요 사람은 마음을 상징함)”하였으니, 이것이 경계도 두고 마음도 두고서 망념을 없애는 공부이다.

將一切內外身心器界諸法
장일체내외신심기계제법
及一切動用施爲 悉觀作眞心妙用
및一切動用施爲 悉觀作眞心妙用
급일체동용시위 실관작진심묘용
一切心念生 便是妙用現前
一切心念生 便是妙用現前
일체심념생 현시묘용현전
既一切皆是妙用 妄心向甚好處安着
既一切皆是妙用 妄心向甚好處安着
기일체 개시묘용 망심향심마쳐안착
故永嘉云 無明實性 即佛性
故永嘉云 無明實性 即佛性
고영가운 무명실성 즉불성
幻化空身 即法身
幻化空身 即法身
환화공신 즉법신

여덟째는 안과 밖이 모두 작용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공부할 때, 안과 밖의 몸과 마음, 이 세계의 모든 법과 행동하고, 쓰고, 베고 하는 것들이 다 진심의 신묘한 작용임을 관찰해야 한다. 그래서 어떤 생각이 일어났다면 이는 곧 신묘한 작용이 나타난 것이고, 이미 일체가 신묘한 작용이라면 망심이 어느 곳에 발붙이겠는가. 그러므로 영가스님은 “무명(無明)에 가리온 참된 성품이 곧 불성(佛性)이요, 실체가 없는 반공이 바로 법신이다” 하였다.

김원직(시인·역경위원)

경조스님 (불입종 종정)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일생에서 한 번쯤은 큰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간에 말입니다. 좋은 인연이라면 그것을 계기로 자신의 삶을 더욱 알차게 가꾸어 다른 사람을 위해 회향하는 삶을 산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좋지 않은 인연이라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의 본래 모습을 볼 수 있는 기회로 삼는다면 그 또한 아주 소중한 인연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인연을 만나든지 간에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했고 그 선택에 따라 열심히 살아왔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도 그런 소중한 인연이 있습니다. 바로 스님이 된 이유이기도 하지요. 내 어머니는 아주 신심 깊은 불자였습니다. 책을 좋아했던 탓도 있었지만 어머니 영향으로 뜻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도 어렸을 적부터 불경을 읽곤 했습니다. 지금도 기억에 생생한데, 주로 <금강경>과 <반야심경> <천수경> 읽기를 좋아했었어요. 그런 저를 어머니는 늘 따뜻한 얼굴로 지켜봐 주셨지요. 풍족할 것도 어려울 것도 없는 생활에 6대 종손이기도 해서 귀여움을 많이 받고 자란 편이었습니다.

불경의 의미를 조금씩 알아가던 22살 되던 해, 우연히 <법화경>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어느 한 구절에서 심장이 맞는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今此三界 皆是我有 其中衆生 悉是我子 而今此處 多諸難處 唯我一人 能爲救護’ (금차삼계 개시유인 유아일인 능위구호) 라는 글귀였습니다. ‘지금 이 세상이 모두 내 것이요 그 가운데 있는 중생 모두 나의 아들인데 지금 이 삼계 안에 모든 환난 충만해도 오직 나 한 사람이 능히 구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때 갑자기 어렸을 때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나무하러 산에 가면 나무하는 사람들은 보통 나무 깎대기 하나를 넘어뜨려 그 나무가 쓰러지는 쪽으로 나무를 하러 가고는 했습다. 그래야 나무를 많이 할 수 있다는 미신 같은 행동이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거기에는 큰 지혜가 숨어 있었던 것이지요. 마음 가는대로 하면 잘못해도 누굴 탓할 수 없을 것이고, 잘못되면 성취감은 물론 거기에서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이치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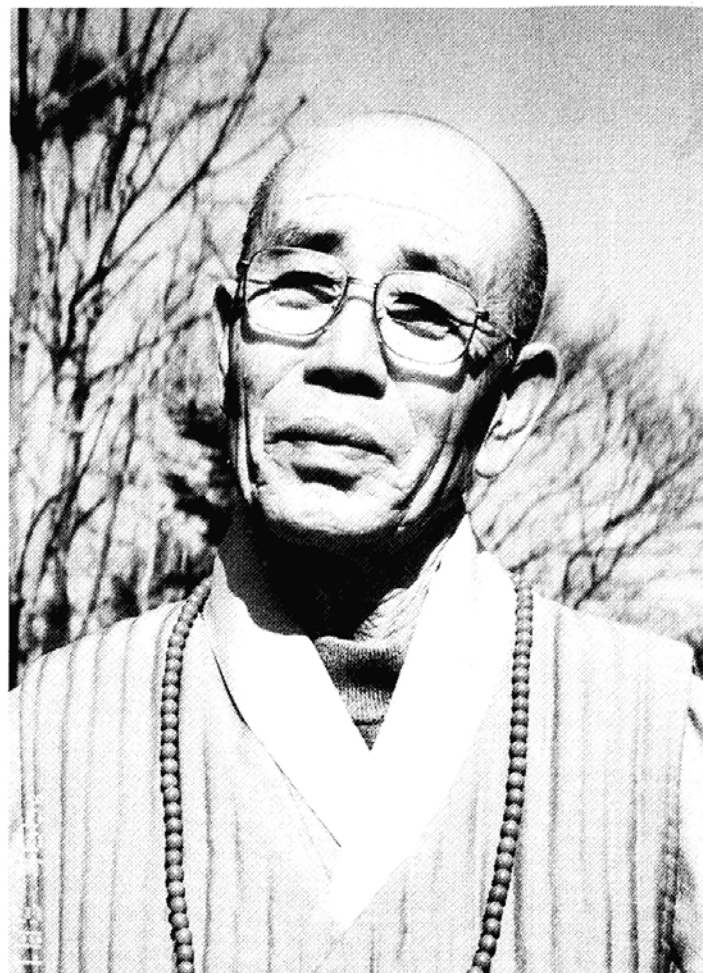
더이상 생각할 것도 없다고 느꼈습니다. 이 세상을 모두 가질 수 있고, 모든 이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고 더불어

나를 바로 볼 수 있다는데 무슨 망설임이 필요했겠습니까. 그 길로 인근 백화사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계신 태허스님에게 출가를 허락받았지요.

태허스님 사자 노릇을 하면서 경전에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한끼만 먹고 용맹정진에 들어갔습니다. 태허스님은 매우 엄격한 분이어서 한 눈 팔 여지도 없었습니다. 한 치라도 공부에 소홀히 하고 있다고 여기시면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너희 늙은이 무엇으로 따뜻한 밥 먹어가며 공부하는데 게으를 수 있는 나”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몇 명이 같이 공부를 시작했지만 끝까지 남은 행자는 저 하나 밖에 없을 정도니까요.

은사스님 밑에서 그렇게 8년을 공부했습니다. 6·25전쟁이 터져 나라가 온통 난리가 났는데도 스님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그저 공부나 열심히 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아마도 그런 은사스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헤아릴 수 없는 불법의 이치를 제대로 깨우치기는 어려웠을지도

- 약력
· 1927년 3월 경북 상주 생
· 1948년 출가, 태허스님을 은사로 득도
· 1955년 백화사 전문강원 대교과 수료
· 1960년 화광사 창건
· 1965년 불입종 수교부장
· 1972년 불입종 총무원장
· 1979년~현재 불입종 종정



“돈과 명예 구하는 사람 많아도
‘참 자기’ 찾으려는 사람 적어요
지금바로 지혜와 용기 내세요”

리가 있음을 더욱 확신하게 된 시기도 이 때였습니다. 그 중 <열반경>의 한 구절은 내가 불가에 입문한 이유를 더욱 확신에 차게 해주었습니다. ‘依法不依人 依義不依語 依智不依識 依了義經 不依不了義經’ (의법불의인 의의 불의어 의지불의식 의요의경 불의불요의경) 이라는 말인데, 그 뜻은 법에 의지하되 사람에 의지하지 말고 의리에 의지하되 말에 의지하지 말고 지혜에 의지하되 분별지식에 의지하지 말고 대승경전에 의지하되 소승경전에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심오한 철학이요 사상입니까. 이 말은 비단 스님이나 불교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처럼 법질서가 무너지고 의리가 헌신짝처럼 버려지고 알파한 수단이 판치는 세상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절실한 것이 이 말은 가르침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四依四不依(사의사불의)’의 가르침은 이 나라 지도자들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리가 있음을 더욱 확신하게 된 시기도 이 때였습니다. 그 중 <열반경>의 한 구절은 내가 불가에 입문한 이유를 더욱 확신에 차게 해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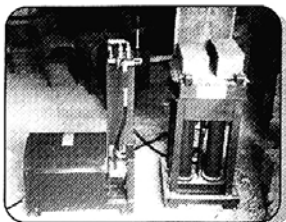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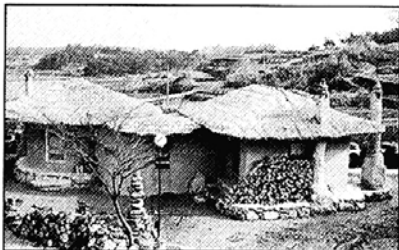
은사스님께서는 늘 제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무엇이든 생각할 때 항상 부처님을 생각하라. 무엇을 말할 때는 항상 부처님 진리를 말하라. 무엇을 행할 때는 항상 부처님 도를 행하라. 그리고 함부로 논지 마라. 논는 것을 좋아하면 입으로는 법을 말할 뿐 결국 법 아닌 것을 말하게 된다.”

그 뒤 백화사 강원에 들어가 경전 공부에 더욱 매진했습니다. 경 속에 모든 진

왕토 흙벽돌 기계 실용신안 의장등록

건강, 장수주택 왕토흙집에 희소식!!

왕토를 물에 반죽하지 않고 상함을 벽돌로 짤 수 있어 바로 건축이 가능한 흙벽돌 기계를 생산 판매합니다.



- 왕토 흙벽돌 기계장점
· 생산량 1일 600~1,000장
· 누구나 사용가능
· 벽돌기본규격 : 30x14x14
· 가정용 전기사용 및 엔진사용

온라인구좌 (우체국) 400077-0037300 봉송왕토마을

왕토 관련 전문 회사 왕토 마을 예식

- 왕토 주택 토굴시공
왕토집 짓기교육 3월 중순이후 연중 月 2-3회
왕토흙집 동호인 모임운영

봉송왕토마을

전북 남원시 운봉읍 장교리 929번지
전화 : 0671)634-0223
팩스 : 0671)34-1237

성문사 조실 청화 큰스님 초청

실적자 돕기 조상천도 구병시식 대법회

귀의 삼보하옵고,

대명사에서서는 큰스님을 모시고 조상천도 구병시식과 실적자 가정돕기를 위한 대법회를 봉행 하오니 불자님들께서는 불연으로 많이 동참하시고 좋은인연 맺으시어 모든 업장 소멸하시길 바랍니다.

- 장소 : 신림동(숙고개) 대명사
일시 : 불기 2543년 4월 3일 (음력 2월 17일)
순서 : 10시부터 예불
11시부터 큰스님법어
12시부터 조상천도 및 구병시식

조상천도 구병시식 - 한기족당 20만원
연등1등 1만원 (실적자 돕기 연등법회)

대명사

전화 02)876-3337 / 팩스 02)874-6634
대명사 대중일동



1. 위치 : 부산광역시 서구 동대신동 산 11번지

위치장점

- 1. 산세가 수려하고 푸른 숲과 맑은 공기
1. 약수를 즐길 수 있는 깨끗한 환경
1. 시내 중심지에 위치, 편리한 교통
1. 마을과 떨어져 있어 한적함
1. 종합병원 <동아대학교 부속병원>이 5분 거리내에 있음.

2. 대 지 : 6,940평

3. 종교시설 : 106평 <대웅전은 조립만 하면 됨>

4. 실버타운 : 829평 <현재공사 진행 40%>

5. 구광사 정덕스님께서 보살도의 원력으로 불사에 동참하실 뜻있는 투자자를 모집니다.

051) 242-6993
016) 580-8125

2천만의 깨달음을

참수행으로 이끄는 신명의 길입니다.

현 대 불 교

지사·지국 안내

- 부산지사 051-634-5114
광주지사 062-375-9986
대구지사 053-768-8008
목포지국 0631-281-2534
양양지국 0396-672-5556
청주지사 016-347-2938
강릉지사 0391-43-5599
대전지사 042-625-1080
안산지사 0345-411-4580
진주지사 0591-747-0106
고성지국 0556-72-0078
제주지사 064-738-5000